

크바시니에프스키 폴란드 대통령 내외 주최 만찬답사

존경하는 알렉산더 크바시니에프스키 대통령 각하 내외분,

그리고 귀빈 여러분,

우리 내외와 일행을 환대해 주신 각하 내외분께 감사드립니다. 나는 대한민국 국가원수로서 처음 폴란드를 방문하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1980년대 말 나는 폴란드 자유노조의 정신이 원탁회의의 화합으로 이어지던 모습을 보면서 큰 감명을 받았습니다. 그로부터 불과 10여년이 지난 지금 폴란드는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로 힘차게 도약하고 있습니다.

각하께서 취임한 이후 경제가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외국인투자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특히 EU와 NATO 가입을 통해 명실상부한 중부유럽의 중심국가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각하의 탁월한 지도력과 폴란드 국민의 저력에 경의를 표합니다.

대통령 각하,

우리 두 나라 관계는 수교 15년의 짧은 기간에도 불구하고 매우 빠르게 발전하

고 있습니다. 폴란드에 대한 우리 기업의 투자가 15억 달러를 넘어서 아시아 국가로는 가장 많습니다. 최근에는 유럽의 공장을 이곳으로 옮기는 우리 기업도 있습니다.

양국은 역사적 환경이 비슷하고, 정서적으로 매우 친밀합니다. 바르샤바 쇼팽 음악원의 외국 유학생 중에서 한국 학생들이 쇼팽의 곡을 가장 잘 이해한다고 들었습니다.

오늘 맺은 관광협력협정과 청소년·체육 교류약정으로 여러 분야의 교류·협력이 더욱 가속화될 것입니다. 또한 양국은 이라크의 안정을 위해 함께 노력하는 등 국제적인 문제 해결에도 긴밀히 협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폴란드는 중립국감독위원회의 일원으로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과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우리의 노력을 적극 지지해 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귀빈 여러분,

각하께서는 네 차례나 한국을 방문하는 등 양국 관계 발전에 각별한 관심을 보여 주셨습니다. 나의 이번 방문을 계기로 우리 두 나라가 한 단계 더 성숙한 미래 지향적인 파트너가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크바시니에프스키 대통령 각하 내외분의 건강과 폴란드의 무궁한 발전, 그리고 양국의 영원한 우정을 위해서 건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